

# 간양되소가



## [해제]

<간양되소가>는 “정구정목 오십분 열반지 강명히 난서적”이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작자는 ‘강명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작시기는 “계유삼월 십오일 디판시 북구척상강”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계유(癸酉)년인 1873년이나 1933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순국문으로 된 필사본이며, 현재 ‘담양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2음보 1행으로 전체 270행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쪽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필사되어 있다. 율격은 대체로 4·4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한가장을 돌이밧고 재초부도 수절이요”, “좁은가삼 헤여 질듯 설환하면 용열하고 남은창자 쓴처질 듯 참노라이 늑난고나”, “써근심장 일반이요”, “시모구박 은근담소 본심으로 시집사리 고생된다”, “잘못한다 흥게하면 정지되문 밀어치고 발연변색 양성하야 솟두방을 돌려치며”, “생똥살로 드러누어 자식불너 말하자니 단잠자기 일수이라”라는 대목에서 조선시대 여성상인 과부 재가 금지와 가족제도, 혼인제도 등의 유교사상이 나타난다. 즉,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원문]

간양되소가

팔자잇자 못이겨서 남에첨명 살펴보니  
 압길한번 곳처들여 부지풍에 수가죽고  
 상한인심 돌아보니 삼노팔이 조선양반  
 하시딴집 분하여라 들쳐보면 무엇신디  
 생삭업난 나의거름 분성적에 연지찍고  
 조롱하고 암시할가 납페친영 예을밧다  
 금독기에 몸을실어 사람갈씨 그리마오  
 예문가진 큰어맛씨 그리마오 그리마오  
 이부불경 열여이늑 한가장을 돌이밧고  
 재초부도 수절이요 서모서모 등분차려  
 일십밧아 살님쑤제 뒤반천신 과이아소  
 삼한갑족 이늑몸이 월계궁에 말근행기  
 사고못친 천도되야 진토중에 썰처쓰나  
 예의염치 말근마음 오매간에 즐기눈물  
 육부중에 뱃치여서 남모르게 흘려가며  
 활개접은 닭기되여 녹발흥빈 희초여에  
 일명두고 사자한이 천산보살 못된한이  
 좁은가삼 헤여질듯 설환하면 용열하고  
 남은창자 쓴처질듯 참노라이 늑난고나  
 잔말긴말 덩허두면 역지처치 싱각하면  
 인지위덕 그안이며 써근심장 일반이요  
 잘못한다 충돌말고 책재원수 늑로하야  
 정담으로 일여주소 임자인심 흐원나면

춘치자명 그안이요 싯침세난 디답보소  
 조흘시구 조흘시구 처연유학 늘근글리  
 그디구변 조흘시구 혼을씨고 나섯난가  
 음흥하기 돌아들어 잉무새가 못되구서  
 남에창조 뒤집기는 엇짓타가 사람일가  
 만고성형 공부자도 이닉연광 그것스나  
 이구산에 불고이라 한갑진갑 넘엇스니  
 남산절에 시주하고 새삼신늘 다시타서  
 뒷동산에 불공들여 성주디주 서와줄걸  
 앙을앙을 시비일커 속기만은 주장보소  
 힐지항지 돛틀제에 오날천기 음침하이  
 퇴창문을 활신열고 바람불고 비올텐가  
 담빅디을 쌍쌍썰며 큰깃침에 토기하고  
 왕청으로 변주치고 이리보고 저리보아  
 종문턱에 들어서서 눈치좃차 좌정하고  
 거짓우숨 헛너그레 삼인동락 사담으로  
 두사람을 웃겨가며 농락벗쳐 말삼하니  
 일신양역 그안이며 혼연수작 지나가나  
 양간지목 달을손가 심정이야 온전할가  
 어나사람 보역조하 일부이쳐 장락궁에  
 고가세죽 종부되야 각별접디 바다가며  
 선평도골 유비군자 천철입을 몸에감고  
 소연등과 부귀로써 어사화운 머리솟고  
 어전풍악 길길적에 정열부인 일렘씨고  
 실닉실닉 불여가며 혼천히지 의염인가  
 동유수야 흐르거든 초흔조야 우라거든  
 오열성은 금하려늑 동정추야 발은달에  
 피을뚝난 너의소리 나의창전 멀이하여  
 임의디로 우려주고 회인심사 돕지마라  
 지원구분 이닉소혜 육월비상 한을품고  
 설원할곳 바이업고 인간오복 갖다고서  
 회과자책 그분이요 듯기조흔 인사밧고  
 삼우남익 자식길너 쓰지못할 여식들은  
 남흔녀흔 성취싯커 출가외인 되야섯고  
 몇몇형제 아들들로 고방차지 큰며나리  
 각산분산 갈나주고 살님막겨 집에두고  
 종자종부 법을발켜 호유목인 규모들어  
 범절차자 말삼하고 일일개유 일너줄제

육십광음 늘근나난 남의주장 되고보이  
 오날부터 시동이라 너의소임 중할시구  
 너른마음 순한성질 별식진민 하올적에  
 그로하야 천성삼아 평균으로 논아먹고  
 압흘서서 인도하야 속수봉양 구고딧점  
 깃차동서 악겨주고 성심성역 다하야서  
 호성심성 극진하면 너의총찬 엇드하며  
 부지하쳐 횡인인들 나의영광 쏘잇것나  
 압집뒧집 아모아모 자기나흔 자식이야  
 그의들은 만명이라 안이라고 할지언정  
 혈혈단신 그안이가 게모되야 드러와서  
 문턱집고 일어설제 골몰공상 무릅씨고  
 알들살들 거두어서 정을붓쳐 호도한이  
 장성한후 장가들여 달을바가 업긧만은  
 일윤딧체 발러두고 점잔타고 맞든인사  
 환장으로 변하야서 검은구름 킷노되고  
 한히갓치 깃든자정 썬살님에 각거하자  
 폭포갓치 썰어져서 영감보고 중돌하그  
 제동심을 미워한다 쌀독안에 합되두고  
 큰아들을 공박하여 생모함에 전을되며  
 밥죽자로 겹쳐잡고 이웃집에 도라가면  
 식양까지 주려주며 횡설수설 사실느려  
 건청설기 일수이요 출전효부 그며나리  
 흔담하기 첫재이나 응답한번 안이하고  
 화흔목성 나지말노 저의과실 만타고서  
 공순하기 꾸러안저 지성으로 비러가며  
 부부간에 근원쫓타 실낭귀에 들어가서  
 괴살불러 히답하면 모자은정 감상될가  
 천언만설 만은말을 웃난안색 훈글양에  
 덤흐두고 숨켜가며 극공극딧 여일하니  
 시비곡즉 발른길을 동촌서촌 모와모와  
 남이몬저 짐작하고 억하심장 가첫기로  
 물윤피상 횡도부려 인심족코 사정알아  
 괘시할소 시모구박 은근담소 본심으로  
 시집사리 고생된다 알들사라 느려주난  
 세정알아 말삼하여 천정으로 고흔시모  
 아리저러 후러모라 조석공양 하올적에  
 도부할미 딧점하고 팔도거린 입상인닷

못밧언것 무어시라 수거러저 기우기력  
 오래산다 총총하며 집수째로 실적씨쳐  
 한편손에 빗서들고 붓두막에 던저도서  
 한술밧을 쓸쳐담아 불티안자 상반되고  
 조상팔기 운감하고 씨근국장 수만채워  
 뉘 티람이 달구후에 덕밧티다 불술밧며  
 잘못한다 흥게하면 정지되문 밀어치고  
 발연변색 양성하야 솟두방을 돌려치며  
 단신음식 남겨두어 니할이력 다히거든  
 가장한아 접디하면 뉘을보고 무삼원망  
 이집쌀은 시집가서 그집인심 무던하야  
 말수업시 잘산것이 사무사이 편하엿지  
 빅운것문 넉넉하야 호도잇난 집난자식  
 남의가문 빗님일가 쌀라가소 쌀라가소  
 오닐닐일 만은날에 영감할맘 마조안저  
 길몰나서 못가갯소 원망소리 나난실소  
 농가골몰 꺼진빅에 승천입지 하얏슬가  
 삼시되시 먹은것이 방구늬지 예사이지  
 하날우러 천도하면 심역일득 벽식하야  
 락담하야 다죽갯소 동기라고 돌려주고  
 진심갈역 썸을흘여 귀신이라 운감할가  
 맛바가며 만든나난 저도각각 히서먹지  
 조심이니 우익인이 아칭연후 살타이지  
 티고니절 가소로워 콩팔철팔 방정셀고  
 벼락갯치 문을닷고 간이말고 마음뒤로  
 이불한장 돌려씨고 흠웃하게 하라하며  
 생똥살로 드러누어 자식불너 말하자니  
 단잠자기 일수이라 제의니외 불순할가  
 그도또한 염여되고 불호횡위 횡습뉘썸  
 그력저력 두자한이 께심함을 말할소야  
 이료썸차 불싸시면 선한자도 스승이요  
 후복썸키 어려오나 악한자도 스승이라  
 어와세상 벗님네요 듯기조흔 항담이요  
 유자유여 썸타함은 썸은간장 말밭이라  
 게유삼월 십오일 뒤판시 북구턱상강  
 정구정목 오십분얼반지 강명히난서적

## [현대역]

간양되소가

팔자 잊자 못 이겨서 남에 천명 살피보니  
 앞길 한 번 고쳐들어 부지풍에 수가죽고  
 상한인심 돌아보니 삼로팔이 조선양반  
 하시대접 분하여라 들쳐보면 무엇인데  
 생색없는 나의걸음 분성적에 연지찍고  
 조롱하고 암시할까 납폐친영 예를 받다  
 금독기에 몸을 실어 사람 갈씨 그리마오  
 예문가진 큰어머니 그리마오 그리마오  
 이부불경 열려있나 한 가장을 둘이 믿고  
 재초부도 수절1이요 서모서모 등분차려  
 일 십 받아 살림뿐제 뒤반천신 과이아소  
 삼한감족 이내몸이 월계궁에 맑은 향기  
 사고무친 천도되어 진토 중에 떨쳤으나  
 예의염치 맑은 마음 오매 간에 즐기눈물  
 육부중에 빛이어서 남모르게 흘러가며  
 활개 접은 닭이 되어 녹발홍빈 희초여애  
 일 명 두고 살자하니 천산보살2 못 된 한이  
 좁은 가슴 헤어질듯 설환하면 용렬3하고  
 남은창자 끊어질듯 참노라니 늙는구나  
 잔말긴말 덮어두면 역시처치 생각하면  
 인지위덕 그 아니며 썩은 심장 일반이요  
 잘못된다 총돌말고 책재원수 나로하여  
 정담4으로 일러 주소 임자인심 후원나면  
 춘치자명 그 아니요 시침 때는 대담보소  
 줄을 시구 줄을 시구 처연유학 늙은 글이  
 그대구변 줄을 시구 혼을 씻고 나섰는가  
 음흉하기 돌아들어 앵무새가 못 되고서  
 남에창자 뒤집기는 어찌타가 사람일가  
 만고성형 공부자도 이내영광 그었으나  
 이구 산에 불고이라 환갑진갑5 넘었으니  
 남산 절에 시주하고 새삼 신을 다시타서  
 뒷동산에 불공6 들어 성주대주7 세워 줄 걸  
 앙을앙을 시비일커 숙기 많은 주장보소  
 힐지항지 돈을 제에 오늘 천기 음침하니  
 퇴창문8을 활짝 열고 바람 불고 비 올 텐가

담뱃대를 꺾꺾떨며 큰기침에 토기하고  
 왕청으로 변주치고 이리보고 저리보아  
 중문 턱에 들어서서 눈치 좇아 좌정9하고  
 거짓웃음 헛너그레 삼인동락 사담10으로  
 두 사람을 웃겨가며 농락부처 말씀하니  
 일신양역 그 아니며 혼연 수작 지나가나  
 양간지목 달을 손가 심정이야 온전할까  
 어느 사람 부역 좋아 일부이처 장락궁11에  
 고가세족 중부12되어 각별접대 받아가며  
 선풍도골13 유비군자 천철입을 몸에 감고  
 소연등과 부귀로서 어사화운 머리 꺾고  
 어전풍악14 길길적에 정렬부인15 일렘띠고  
 실내실내 불어가며 혼천히지 의염인가  
 동류수야 흐르거든 초흔 조야 울려거든  
 오열성은 금하려나 동정추야 밝은 달에  
 피를 토는 너의 소리 나의 창전 멀리하여  
 임의대로 울어주고 회인심사 돕지마라  
 지원구분 이내소혜 육 월 비상 한을 품고  
 설원할 곳 바이없고 인간오복 같다 고서  
 회과자책 그분이요 듣기 좋은 인사받고  
 삼우남매 자식 길러 쓰지 못 할 여식들은  
 남흔 녀흔 성취시켜 출가외인 되어났고  
 몇몇 형제 아들들로 고방차지 큰며느리  
 각산분산 갈라주고 살림 맡겨 집에 두고  
 종자종부 법을 밝혀 호유목인 규모 들어  
 범절 찾아 말씀하고 일일개유 일러 줄 제  
 육 십 광음16 늙은 나는 남의주장 되고 보니  
 오늘부터 시동이라 너의 소임17 중할 시구  
 넓은 마음 순한 성질 별식진민 하올 적에  
 그로하여 천성삼아 평균으로 나눠먹고  
 앞을 서서 인도하야 속수봉양 구고18대접  
 깃차동서 아껴주고 성심성역 다하여서  
 효성심성 극진하면 너의 칭찬 어떠하며  
 부지하처 행인인들 나의영광 또 있겠나  
 앞집뒷집 아모아모 자기 낳은 자식이야  
 그의 들은 만 명이라 아니라고 할지언정  
 혈혈단신19 그 아닌가 계모되어20 들어와서  
 문턱집고 일어설제 골몰공상 무릅쓰고

알뜰살뜰 거두어서 정을 붙여 효도하니  
 장성한 후 장가들어 다름 바가 없건마는  
 일룬대체 받아 두고 점잔타고 받은 인사  
 환장으로 변하여서 검은 구름 백로 되고  
 한해같이 깊은 자정 탄살림에 각거21하자  
 폭포같이 떨어져서 영감보고 중돌하고  
 제 동생을 미워한다 쌀독 안에 합되 두고  
 큰아들을 공박22하여 생모함에 전을 되며  
 밥죽자로 겹쳐잡고 이웃집에 돌아가면  
 식양까지 주려주며 횡설수설23 사실 늘어  
 간청24떨기 일쑤이요 출전효부 그며느리  
 혼담하기 첫째이나 응답한번 아니하고  
 화난목성 나지말고 저의과실25 많다고서  
 공순하게 꿇어앉아 지성26으로 빌어가며  
 부부간에 근원 좋다 신랑 귀에 들어가서  
 기살볼러 해답하면 모자은정 감상될까  
 천연만설27 많은 말을 웃는 안색 한글 양에  
 덮어 두고 숨겨가며 극공극대 여일하니  
 시비곡즉 바른길을 동춘서춘 모와모와  
 남이 먼저 짐작하고 억하심장28 가졌기로  
 물윤패상 행도부려 인심줄고 사정알아  
 팔시할소 시모구박 은근담소 본심으로  
 시집살이 고생된다 알뜰살아 늘여주는  
 세정알아 말씀하여 천정으로 고운시모  
 아리저러 후러모라 조석공양29 하올 적에  
 도부할미 대접하고 팔도거린 입상인데  
 못 믿은 건 무엇이랴 수그러져 기우기력  
 오래산다 총총하며 집 수새로 슬쩍스쳐  
 한편 손에 빗서들고 부뚜막에 던져져서  
 한술밭을 끌쳐 담아 불티얏아 상반되고  
 조상팔개 운감하고 식은 국장 수만 채워  
 썩 티람이 달군 후에 턱 밑에다 불 솔 밀며  
 잘못한다 훈계하면 정지30대문 밀어치고  
 발연변색31 양성하야 솔두방을 둘러치며  
 단신음식 남겨두어 내 할 일은 다했거든  
 가장하나 접대하면 뉘를 보고 무슨 원망  
 이집 딸은 시집가서 그집 인심 무던하여  
 말수없이 잘산 것이 사무사이 편하였지

배운 견문32 넉넉하여 효도있는 집난자식  
남의가문 빗님일가 따라가소 따라가소  
오늘내일 많은 날에 영감 할멈 마주앉아  
길 몰라서 못가겠소 원망소리 나는 싫소  
농가골몰 꺼진 배에 승천입지33 하였을가  
삼시34되어 먹은 것이 방구나지 예사이지  
하늘 울어 천도35하면 심역일득 벽식하여  
낙담하여 다 죽겠오 동기라고 돌려주고  
진심갈역 땀을 흘려 귀신이라 운감36할까  
맛봐가며 만든 나는 저도 각각 해서먹지  
조심이니 우애이니 아생연 후 살 탓이지  
태고니절 가소로워 콩팔철팔 방정37떨고  
벼락같이 문을 닫고 간이말고 마음대로  
이불 한 장 돌려쓰고 흐뭇하게 하라하며  
생 몸살로 드러누워 자식 불러 말하자니  
단장자기 일쑤이라 제의내외 불순할까  
그도 또한 염려되고 불호행위 행습될 뿐  
그럭저럭 두자하니 께쌈함을 말할소냐  
이로 좃아 불작시면 선한자도 스승이요  
후복 좋기 어려우나 악한자도 스승이라  
어와 세상 벗님네요 듣기 좋은 향담38이요  
유자유여 즐다함은 썩은 간장 말밥39이라  
개유 삼월 십오일 대판시 북구택상강  
정구정목 오십분 열반지 강명히난서적

## [각주]

- 1) 수절(守節) : 정절을 지키.
- 2) 천산보살 : 보살(菩薩)은 부처가 전생에서 수행하던 시절, 수기를 받은 이후의 몸. 또는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불교의 이상적 수행자상.
- 3) 용렬(庸劣) : 어리석고 둔함.
- 4) 정담(情談) :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
- 5) 환갑진갑(還甲) : 환갑(還甲)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진갑(進甲)은 환갑의 이듬해. 또는 그해의 생일.
- 6) 불공(佛供) : 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 7) 성주대주 ) : 성주는 가정에서 모시는 신의 하나. 집의 건물을 수호하며, 가신(家神) 가운데 맨 윗자리를 차지함.
- 8) 퇴창문(推窓門) : 밀어서 열고 닫는 문.
- 9) 좌정(坐定) : 자리 잡아 앉음. 남을 높일 때나 점잖게 이를 때에 씀.
- 10) 사담(私談) : 사사로이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 11) 장락궁(長樂宮) :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흥락궁(興樂宮)을 고쳐 지은 궁전. 그 안에 태후의 거처였던 장신궁이 있었음.
- 12) 종부(宗婦) :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말머느리를 이름.
- 13) 선풍도골(仙風道骨) :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아(高雅)한 풍채를 이르는 말.
- 14) 풍악(風樂) :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주로 기악을 이름.
- 15) 정렬부인(貞烈夫人) : 조선 시대에,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 16) 광음(光陰) :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 17) 소임(所任) :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 18)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19) 혈혈단신(孑孓單身)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20) 계모(繼母) : 의붓어머니.
- 21) 각거(各居) :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따로 떨어져 삶.
- 22) 공박(攻駁) :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
- 23) 횡설수설(橫說豎說)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쿵저러쿵 지껄임.
- 24) 간청(懇請) : 간절히 청함. 또는 그런 청.
- 25) 과실(過失) :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26) 지성(至誠) : 지극한 정성.
- 27) 천언만설(踐言) : 천언(踐言)은 말한 대로 실천함.
- 28) 억하심장(抑何心腸) : 억하심정.
- 29) 조석공양(朝夕供養) : 아침저녁으로 웃어른께 음식을 드림.
- 30) 정지 : ‘부엌’의 방언(강원, 경상, 전라, 충북).
- 31) 발연변색(勃然變色) : 왈칵 성을 내어 얼굴빛이 달라짐.
- 32) 견문(見聞) :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

- 33) 승천입지(昇天入地) :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취를 감추고 없어짐을 이르는 말.
- 34) 삼시(三時) : 한 시부터 따져서 셋째 번의 시. 곧 세 시를 이룸.
- 35) 천도(薦度) : 죽은 사람의 넋이 정토나 천상에 나도록 기원하는 일. 불보살에게 재(齋)를 올리고 독경, 시식(施食) 따위를 함.
- 36) 운감(殞感) : 제사 때에 차려 놓은 음식을 귀신이 맛봄.
- 37) 방정 :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 38) 향담(巷談) : 향설(巷說).
- 39) 말밥 : 좋지 못한 이야기의 대상.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